

## 강진자비원 'KJB 사랑샘터 3호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3일 강진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강진자비원'을 'KJB 사랑샘터 3호점'으로 선정하고 후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성금 200만원을, 김창남(남영건설 회장)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은 200만원 상당의 쌀을 후원물품으로 전달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국립 나주병원 한방 진료실 개설



국립나주병원(원장 배안)은 3일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여 재원환자들의 정신 건강관리는 물론, 신체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나섰다. /국립나주병원 제공

## 순천 1%희망나눔, 음식 바자회 성료



순천 1%희망나눔(대표 송광호)은 지역의 불우한 이웃 500여 명에게 8년째 나눔빵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음식 바자회 행사를 기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 그린스타트-광주교육대 '특수직무 연수'



광주시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원장 최도성 교수)은 최근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교육 전문교사 양성과정' 특수직무 연수를 진행했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동창·동문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강열) 월례회=5일(목)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재광 별교상고 총동문회(위원장 임병학)=10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 삼복회관 3층(무궁화홀) 010-2689-9920.

## 알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 시 아이 병원비·생활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괴로운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가가 직접 상담. 광주심리상담연구

## 전국 자원봉사대회 은상 광주 세종고 봉사 동아리 'Wee Magic Class'

**"소박한 취미로 그들에게 기쁨 줄 수 있어 행복"**

## 풍선아트 배우는 장애우 친구 얼굴 보며 보람

## 가산점 때문에 시작했지만 봉사의 기쁨 배워

'풍선아트'를 취미로 하는 이미진(18·광주세종고 2년)은 풍선으로 꽃과 물건을 만드는 이 작업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직접 경험했다.

처음에는 그저 풍선으로 이것 저것 만드는 즐거움에 시작한 취미였다. 하지만, 학교 봉사동아리 'Wee Magic Class'에서 본격적으로 풍선아트를 배운 뒤 어르신들이 요양하고 있는 요양원, 장애우 학교 등으로 매주 자원봉사를 나가면서, 내겐 소박한 취미가 그들에겐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임을 알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말 불일 상태가 왔다고 좋아하시고요, 장애우 친구들에게 풍선아트를 가르쳐주면 자

기에도 뭔가를 했다는 뿐만 아니라 살갑게 다가옵니다."

같은 학년 백지현양도 마찬가지. 백양의 취미는 마술. 동아리를 지도하는 김상훈 교사의 도움으로 하나둘 익힌 마술을 주말 자원봉사에서 써먹을 때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르신들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보면서 '이웃에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 세종고 학생 20명으로 꾸려진 봉사동아리 'Wee Magic Class'는 지난해 3월 처음 결성됐을 때만 해도 봉사활동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몇몇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었고, 나머지도

대학 가는데 필요한 가산점 받을 생각에 참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거듭할수록 반겨주는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우 학생들이 늘어나자 이들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변했다.

지도교사가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 아트풍선 실내장을 기획하고, 마술공연 계획을 짜



다, 마술과 풍선아트 외에도 족족 시켜 드리기, 책 읽어드리기, 산책 도와드 리기 등을 하며 주말이면 안가 본 요양원이 없을 정도로 바빠 움직이고 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안학교도 찾아간다.

이들 학생들이 이번에 큰상을 받았 다. 푸르멘델사회공헌재단과 한국중 등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하는 제12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 대회에서 광주지역 은상 수상자로 선정돼 장학금 100만원과 상장, 은메달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은상 수상자들 중 9월 7일 공식시상식에서 3명의 장관상 및 7명의 금상 수상자가 선정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탱크' 최경주 배우로 깜짝 변신

## 골프 소재 미국 영화에 출연

완도 출신 프로골퍼 최경주(40)가 전설적인 골프 선수 배역을 맡아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한다.

최경주의 매니지먼트 회사 IMG는 '최경주가 명배우 로버트 뒤클리프트' 대회는 사실상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오태권은 치송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으로 생각해 온 전설적인 골프선수로 평소 최경주가 보여준 강

인한 이미지와도 잘 맞아 뛰어진다.

미국 작가 데이비드 죽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이 작품은 골프 유망

주였던 주인공 루크 치솜(루카스 블랙 분)이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감동 스토리를 담았다.

최경주는 마지막 부분에 아시아

가 배출한 세계 최고의 골퍼 '오대권' 역으로 약 20분간 등장한다.

두 사람이 우승을 놓고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텍사스 오픈' 대회는 사실상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오태권은 치송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으로 생각해 온 전설적인 골프선수로 평소 최경주가 보여준 강

인한 이미지와도 잘 맞아 뛰어진다.

5일부터 월드골프챔피언십 브리

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활약을 마쳤다.

최경주는 마지막 부분에 아시아

가 배출한 세계 최고의 골퍼 '오대권' 역으로 약 20분간 등장한다.

두 사람이 우승을 놓고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텍

사스 오픈' 대회는 사실상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오태권은 치송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으로 생각해 온 전설적인

골프선수로 평소 최경주가 보여준 강

인한 이미지와도 잘 맞아 뛰어진다.

5일부터 월드골프챔피언십 브리

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

안 활약을 마쳤다.

최경주는 마지막 부분에 아시아

가 배출한 세계 최고의 골퍼 '오대권' 역으로 약 20분간 등장한다.

두 사람이 우승을 놓고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텍

사스 오픈' 대회는 사실상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오태권은 치송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으로 생각해 온 전설적인

골프선수로 평소 최경주가 보여준 강

인한 이미지와도 잘 맞아 뛰어진다.

5일부터 월드골프챔피언십 브리

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

안 활약을 마쳤다.

최경주는 마지막 부분에 아시아

가 배출한 세계 최고의 골퍼 '오대권' 역으로 약 20분간 등장한다.

두 사람이 우승을 놓고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텍

사스 오픈' 대회는 사실상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오태권은 치송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으로 생각해 온 전설적인

골프선수로 평소 최경주가 보여준 강

인한 이미지와도 잘 맞아 뛰어진다.

5일부터 월드골프챔피언십 브리

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

안 활약을 마쳤다.

최경주는 마지막 부분에 아시아

가 배출한 세계 최고의 골퍼 '오대권' 역으로 약 20분간 등장한다.

두 사람이 우승을 놓고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텍

사스 오픈' 대회는 사실상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오태권은 치송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으로 생각해 온 전설적인

골프선수로 평소 최경주가 보여준 강

인한 이미지와도 잘 맞아 뛰어진다.

5일부터 월드골프챔피언십 브리

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

안 활약을 마쳤다.

최경주는 마지막 부분에 아시아

가 배출한 세계 최고의 골퍼 '오대권' 역으로 약 20분간 등장한다.

두 사람이 우승을 놓고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텍

사스 오픈' 대회는 사실상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오태권은 치송이 넘을 수 없는

'큰 산'으로 생각해 온 전설적인

골프선수로 평소 최경주가 보여준 강

인한 이미지와도 잘 맞아 뛰어진다.

5일부터 월드골프챔피언십 브리

지스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하는

최경주는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

안 활약을 마쳤다.

최경주는 마지막 부분에 아시아

가 배출한 세계 최고의 골퍼 '오대권' 역으로 약 20분간 등장한다.

두 사람이 우승을 놓고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